

서울대 이공계 우열반 편성

내년부터 신입생 평가 시험에 기초과학도 포함

내년부터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은 모두 수·화·과학 측정시험을 치러 고급·일반·기초 과목 수강생으로 분리 편성된다.

서울대는 기초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과학 교과교육 개선안을 마련해 이를 2008학년도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지난날 31일 밝혔다.

기초과학 평가시험 의무화=수학에 국한돼 온 입학 전 평가시험을 물리·생물·화학 등 기초 과학에 확대 실시한다. 이공계 신입생들은 수학의 경우 수시모집 선발 신입생과 정시

모집 선발생이 각각 평가시험을 치러야 하며 다른 과학 과목은 정시모집 이후 한꺼번에 평가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신입생들은 시험 결과에 따라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는 기초과목 수강생, 고급 과정 및 심화까지 병행하는 고급과목 수강생 등으로 나뉜다.

기초과학 운영평가위원회 구성=기초교육원에 교과운영평가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수·화·물·화·생물 교과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교과목 개발·운영·평가·조교 선발

등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계승혁(수학), 김대식(물리), 정두수(화학) 교수 등 해당 학문의 권위있는 교수를 필두로 공대·농생대·경영대·사범대·약대 등 관련 단과대 교수 총 36명이 2년 임기의 위원으로 소위원회에 참가한다.

소위원회는 '학부생 조교'를 도입해 3~4학년 학생 중 우수한 학생을 조교로 선발, 전공과목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1~2학년 학부생에게 개인교습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재교육 실시·인문계 과학과목 신설=

정상급 수준의 실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기초 과목 이수를 면제해 주고 지도교수단의 특별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과학 영재교육'을 본격 실시한다.

학문별 교과운영평가소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20명 안팎으로 선발되는 최우수학생들은 기초과목 이수를 최대 14학점(수학 6학점, 과학 8학점)까지 면제받게 된다.

이들 학생은 기초과목 이수 면제로 남은 학점을 활용해 학생이 직접 강의를 설계하는 '학생 주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든지 관심 있는 다른 분야의 교양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서울대는 이와 함께 인문계·사회계 학생을 위한 기초과학 과목을 별도로 마련, 분야별로 1개 이상의 강좌를 개설키로 했다.

기초교육원은 "학문간 융합이 강조되고 기초과학 소양을 필요로 하는 전공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인문·사회계 학생을 위해 강좌를 만들고 별도의 커리큘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타 교수' 강의 인터넷에 공개

'대학 교육력 향상방안' 발표

내년부터 각 대학 유명교수의 강의 내용이 다른 대학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되고 졸업생들이 출신 대학교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등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추진된다. 또 사립대학 적립금의 투자 범위가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고 대학의 수익 사업이 허용되는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을 신선헤 각 10개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학술정보원(KERIS)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논문의 질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학·경제학 등 국제통용성이 높은 50개 전공에 대해서는 국제표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교수의 강의력 향상을 위해 전국 105개 대학에 설치돼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터(CTL·Center for Teaching & Learning)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30개 CTL을 선정해 3억원씩 지원하고 국

우수강의·논문상 신설

자산 운용 규제도 완화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난날 3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서울·수도권 지역 대학총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학교육력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내년부터 각 대학 스타교수의 강의내용을 문서 형태로 인터넷에 공개해 타 대학 교수·학생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5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강의의 공개하고자 하는 대학에 지원해 주기로 했다.

'우수강의상'(The Best Lecture Awards)과 '올해의 박사학위 논문'

가센터 및 권역별센터를 따로 지정해 신입 및 경력 교수 세미나, 수업 설계 및 개발, 수업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관련 규제도 한층 완화된다. 현재 제1금융권에만 예치하도록 돼 있는 사립대학의 적립금(총 5조7천억원)을 제2금융권(유가증권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지확보를 100% 이상인 대학의 경우 유류 부지를 임대해 문화·출판·운동시설·주차장 설치 등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시책 시행 앞서 다양한 자문"

'광주교육발전자문위' 활동 돌입

광주 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실천 대안을 제시할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지난날 30일 발족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자문위는 광주시교육청이 각계 각층에서 추천받은 60여명의 인사 중 적능·분과·기관별 안배를 고려해 선정한 23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은(가나다 순) 강정기 KBS광주방송 보도팀장, 김남순 조선대 교수, 김덕산 문화중 교장, 김승규 세종고 운영위원장, 김영선 무등일보 편집국장, 김영욱 전남대 교수, 노창수 광주여고 교장, 박추자 전 운천초교 교장, 신재

철 전남대 교수, 신현중 전 광주교육정보보원장, 양시복 광주시교육청 교문번호사, 양희주 광주시청 정책기획관, 염동원 전남여상고 교장, 윤광현 유촌초교 교장, 오희심 정덕유치원 원장, 이계양 광주YMCA이사, 이기홍 전교조 광주지부 사무처장, 이영로 광주시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이정선 광주교육대 교수, 정인국 선명학교 교장, 조경완 광주일보 편집부국장, 최원경 전 광주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 한연기 전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 등이다.

자문위는 학생·장학, 교원·인사, 행정·시설, 제도개선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월 1회 모임과 연 2~3회 전체모임을 통해 학생 중심의 눈높이 교육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자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황태중기자 hwangtae@



광주예고 무용부가 지난날 23일 열린 제36회 전국세종무용콩쿠르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전국 규모의 무용제에서 잇따라 수상했다. 사진은 발레 군무팀의 경연 모습.

캠퍼스 소식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사업단 선정

○광주대(총장 김혁중)가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07년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사업단으로 선정됐다.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은 산업자원부가 무역 전문인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번 2007 사업단은 광주대를 비롯해 총 19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호남지역 사립 대학으로는 광주대가 유일하게 뽑혔다.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300~600명의 학생이 무역관련 이론과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선정된 대학에 모두 2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은 2007년 2학기부터 오는 2009년 6월까지 2년 동안 운영되며, 무역실무와 전자무역, 현장실습 등으로 구성된 총 30학점, 1천 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9일 개교 55주년 '용봉인의 밤' 행사

○전남대(총장 강정재)가 오는 9일 개교 55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갖는다. 9일 오후 6시 대학 체육관에서 전남대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용봉인의 밤' 행사가 펼쳐진다.

8일 오전 11시에는 국제회의동 응봉홀에서 개교 55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학술적으로 탁월한 성취를 올린 교수에 대한 용봉학술상 시상,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을 대상으로 한 용봉인 영예대상 시상, 인권평화봉사 에세이상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또 이날 오후 7시에는 대학 대강당에서 음악 관련 동아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생 음악회'를 연다.

日 오사카국제대와 학술교류 협정

○동강대학교(학장이주석)는 최근 일본 오사카국제대학을 방문해 학술교류 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조인식에는 대학은 물론 대학이 속해 있는 학원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학교법인 후성학원 이원모 이사장과 오사카국제학원 오우다 고 이사장이 참석했다.

두 대학은 앞으로 교원 및 학생 상호 교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연구 등 협의에 의해 마련된 구체적인 세부 실시세칙을 근거로 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예고 무용경연 잇단 경사

전국대회 우승 등 우수한 성적

광주예고(교장 윤영월)가 4월과 5월 열린 전국 규모의 무용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 눈길을 모으고 있다.

광주예고는 지난날 23일 열린 제36회 전국세종무용콩쿠르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현대무용 군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또 문대하양이 발레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10명이 입상했다.

제27회 중앙대 전국남녀무용경연대회에서는 장예지(발레 창작 금상)양 등 12명이 개인상을 수상했으며 제17회 성균관대 무용경연대회에서는 강상은(현대무용)양이 금상을 받았다.

그밖에 광주예대 주체 제10회 무용경연대회에서도 종합우승상을 수상했으며 조순대가 주최한 제32회 전국초·중고 무용경연대회에서는 40여명의 개인 입상자를 냈다.

윤영월 교장은 "올해부터 시 지정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로 지정받아 더욱 기량이 뛰어난 우수 인력을 강사로 초빙, 학생들을 가르친 게 효과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대생 하루 평균 문자메시지 51건

'전대신문' 설문조사

전남대학생은 하루 평균 몇 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낼까?

전남대 학보인 '전대신문'이 지난날 53주년을 맞아 남학생 251명, 여학생 226명 등 재학생 4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무려 51.7건에 달했다. 통계청이 밝힌 15~19세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문자 발송건수 60.1건에는 못 미치지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대학생들의 중요한 연락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전남대학생들은 또 하루 평균 1시간 15분가량 TV를 시청하며 신문은 보는 데는 고작 23분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은 일주일에 평균 1.5회 마시며 학교 밖 음식점보다 값이 상대적으로싼 구내식당도 일주일에 단 한 번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MODISH 기품과 중후함으로 완성되는 엔틱의 명품

모디쉬갤러리 Sale

www.modishgallery.co.kr

모디쉬갤러리 오픈 세일 이벤트

30% 오페라 침실세트
장롱, 화장대, 침대(메트리스베도), 협탁
몽블랑 2+2 가족소파 (5조한정) 2,900,000 → 1,400,000원
아그네스 2+2 가족소파 (5조한정) 3,250,000 → 1,600,000원
황금 4인 대리석식탁 (5조한정) 1,300,000 → 690,000원
엔틱전환기 (선착순 20명) → 39,000원

미가엘 침실세트(원경장롱12자+화장대2+침대(4)4인방)

Open기념 황토침실대, 장수운동침대 한정판매

HS-6720 비토 1,990,000원 (5조한정판매)
JSD-비토 1,470,000원 (5조한정판매)

미가엘 5단서랍장, 아사아 2.2 소파, 미가엘 화장대, 오메가 대리석 식탁세트

모디쉬갤러리 광주전시장 ☎10621252-3001~2 / 금호월드 7층 ☎10621350-8764

일본 직수입 구제 전문샵 (토·소매)

- 도쿄쥬스** 남·녀 의류, 신발, 가방 외 각종 소품 다양하게 구비
 - ① 호점 : 금남지하상가 0동8호(지하철 구도청역 입구) 062)227-5355
 - ② 호점 : 광주세무서 정문 맞은편(밀리오레 옆) 062)233-5355
 - ④ 호점 : 두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062)265-5355
- 리틀도쿄** 아동구제·캐릭터전문(의류, 신발, 가방, 우산, 실내용 등 다량구비)
 - 금남지하상가 0동9호(지하철 구도청역 입구) 062)228-1130

●광두 최후 일본 구제 멀티샵
●당신의 패션이 시작되는 곳
●기성품은 변화 개성연출
●Nippon Style

●희망의 품격
●부담없는 가격
●편안한 쇼핑

스파이더맨, 파워레인저, 유캔도, 프린세스, 슈가룬

도쿄쥬스 · 리틀도쿄 아름다운 당신, 오늘 꼭 한번 찾아주세요!!